

# 진안군 청년정책위원회 개최

# 청년창업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장수군, 11~23일까지 창업공간·창업더하기 지원사업 2개 분야

청년정책 추진실적 보고·추진계획·주요사업 심의·발전방향 등 논의

진안군은 9일 군청 상황실에서 청년정책위원회(위원장 김창열, 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 청년정책의 추진계획 보고 및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진안군은 9일 군청 상황실에서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 청년정책의 추진계획 보고 및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2020년에 구성되어 공무원(관련부서장), 전문가, 청년(7명, 40%) 등 청년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매년 연초에 전년도 추진실적 보고 및 금년도 시행계획의 점검, 그 밖의 청년정책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1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보고, △2022년 청년정책 추진계획 및 주요사업 심의, △청년정책 발전방향 토의 순으로 진행했다.

또한 정부부처(청년특별대책) 방향에 따라 '청년이 누구나 동등한 삶의 행복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보장'과 '청년세대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올해 주요 사업으로는 지난해 조성된 청년 공간 및 청년네트워크 활성화, 정착지원사업(청년주거비지원(군), 저소득층 청년월세지원사업, 전북청년수당) 등 9개 청년지원사업과 지역주도

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취업지원사업 등 일자리 15개 사업에 대해 얘기 나왔다.

특히 작년 12월 청년 정책실문조사 시 일자리·주거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아 올해부터 내일창업아카데미, 취업상담센터 등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신규 추진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도 규모를 확대하며, 청년주거비 역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인구감소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이 중심이 되는 지역문화

와 청년중심 정책결정을 위해 도시재생사업과 청년협업체사업을 연계하여 내년도에 준공될 청년미래지원센터와 셰어하우스 등을 청년친화 맞춤형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김창열 위원장은 "청년문제를 현재 가장 시급한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고, 일자리 창출과 주거안정 등 맞춤형 청년정책을 펼쳐 청년에게 친화적인 진안을 만들고,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진안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제감도 높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이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2022년 청년창업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창업 초기 경제적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창업지원을 제공해 청년의 지역 정착 안정화를 유도하고 혁신적인 창업 경제지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청년창업공간지원사업(7명) ▲청년 창업더하기 지원사업(2명) 2개 분야다.

청년창업공간지원사업은 예비창업자에게 임차료, 공과금, 장비구입 등을 위해 1명당 1,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자격은 만 3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다.

청년창업더하기 지원사업은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자들에게 시설비, 리모델링, 장비구입, 홍보 및 마케팅비 등을 위해 1명당 사업비 3,000

만 원(보조금 1,800만 원/자부담 1,200만 원)을 지원하며, 컨설팅비 120만 원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자격은 49세 이하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자다.

신청대상자는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거나 장수군에 전입을 희망하는 자로 사업 선정 후 1개월 이내 전입신고가 가능해야 하며,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예비) 창업자들은 군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뒤 장수군 일자리경제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하면 된다.

황우상 일자리경제과장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청년들의 유입이 중요하다"며 "청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의 많은 신청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청년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기자



# 무주군, 초등 돌봄교실에 과일간식 지원

1인당 150g 내외 제철과일 연간 30회 이상 제공

무주군은 올해 2천47만4천 원(국비 50%, 도비 15%, 군비35%)의 사업비를 투입해 '초등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초등학생들에게 1인당 150g 내외(1,900원/인당)의 과일을 연간 30회 이상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당 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의 학부모 또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요조사 시 과일에 대한 거부반응(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무주군에 따르면 공급업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과한 가공 적격업체 중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동일한 종류의 과일은 연속 3회 이상 제공하지 않고 연간 지원하는 품목도 7종 이상으로 다양화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과일간식 섭취 지도와 식습관 개선을 위한 교육교재 및 동영상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전문선기자

# 진안고원치유숲, 국립농업과학원 치유농업연구회 현장워크숍 진행

진안고원치유숲은 지난 7~8일까지 2일간 국립농업과학원 치유농업연구회 현장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는 치유농업연구회의 자문을 받고 있는 조백환 진안고원치유숲 센터장의 추천으로 진안군에서 열리게 됐다.

이 날 행사는 국립농업과학원장을 비롯해 농과원 분야별 담당자와 자문 교

수진, 농업회사 대표와 연구회 등 40명이 참석했다.

시작에 앞서, 김상남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의미 있는 발표와 토론이 연구현장과 농업 현장의 연계를 공고히 하고 종합적인 치유농업 모델 개발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중장기 연구계획안 발표 및 토론, 연구

회 향후 발전방안, 자연치유요법 실증 및 바른먹거리 체험 등으로 이뤄졌다.

세부 주제발표는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운영 현황과 성과, △동물교감치유와 융복합 치유농업 발전방안, △심리치유 자원으로 곤충의 활용 가능성과 전망, △다산에게 배우는 농촌 치유자원의 융복합 활용 지혜 순으로 진행되었다.

/진안=우태만기자

# 전춘성 진안군수 공약 이행률 84% 달성

공약이행평가 군민배심원단 전체회의 개최

전춘성 진안군수의 민선7기 공약 이행률이 지난해 12월 말 기준 84%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진안군 공약이행평가 군민배심원단(단장 배병욱, 이하 군민배심원단)이 전 군수가 군민들과 약속한 공약사항을 전체회의를 통해 심사한 결과다.

진안군 군민배심원단은 지난 1월 24일~2월 8일까지 16일간 분과회의를 거쳐 공약이행 정도를 평가한 결과를 8일 최종 의결했다.

평가 결과를 보면 총 33개 사업 중 완료된 사업은 2020년 8개 사업, 2021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주민 연료비 지원, ▲반려동물 케어, ▲전통시장 임대료 지원, ▲치매안심 돌봄시스템 구축 등 11개 사업으로 총 19개 사업이다. 반면, 미진한 사업은 ▲소태정 터널 조기 착공, ▲신성장동력 드론산업 기반 구축사업 2개 사업이다.

이에 따라 군민배심원단은 소태정 터널 조기 착공 사업이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일괄 예비타당성 평가 결과 사업 경제성 부족으로 계획에 미반영돼 사업추진이 불가하므로 공약 변경 심의를 통해 공약을 폐기하기로 했다.

또한 신성장동력 드론산업기반 구축사업은 드론활용센터 유치 공모사업에 미선정됨에 따라 드론 실증도시 구축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내용을 변경해 드론 관련 사업을 활성화를 통해 진안군 신성장동력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공약 변경을 승인했다.

배병욱 단장은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의 이행은 단순히 공약사업이 완료됐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니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것이란 점을 유념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기자

## 지역 소식통

### 무주군, 농어촌소득 지원자금 지원 나서

무주군은 관내 농업인의 소득 수준 향상과 농업법인의 성공적인 소득증대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2022년 농어촌소득지원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어촌소득지원자금 지원 사업은 장기·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해 △농업인 자립기반 구축과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 △군정시책에 부합하는 농업소득원 발굴·육성, △친환경농업 실천 및 농촌관광발달을 활성화 등의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무주군은 올해 11억 원을 투입해 고정금리 1%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의 융자를 지원한다.

신청기한은 2월 23일까지로 개인은 농어촌소득지원자금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조회·활용 동의서, 농업경영체 또는 농지원부 등을 갖추고, 법인은 농어촌소득지원자금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조회·활용 동의서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전부말소사항 포함), 법인 재무제표 등 매출실적 증빙서류 등을 갖춰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무주=전문선기자

### 장수소방서, 노인요양시설 안전하기 좋은 날 행사 가저

장수소방서(서장 소재실)는 9일 장수노인전문요양원에서 대령화재 방지 및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안전하기 좋은 날(D-day)' 행사를 실시했다.

안전하기 좋은 날(D-day) 행사는 지난 1월부터 매월 둘째주 수요일에 노유자시설,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화재경계지구, 공장, 물류창고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관계인 자율안전점검을 독려하고 실효성있는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하고자 진행하고 있다.

특히 2월에는 입소자 대부분이 거동불편 환자로 화재 시 인명피해가 클 것이 예상되는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관서장 현장방문점검 및 기관장 1:1면담(컨설팅) 실시 ▲소방시설 합동점검 ▲관계인 자율안전점검 독려 ▲피난약자시설 대피공간(노대, 경사도, 연결복도 등) 설치 독려 등의 일정을 진행했다.

/장수=고관호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